

## 심청의 희생, 박해미의 용기 브로드웨이를 향한 한 걸음

전통을 넘어선 감동, K-MUSICAL "블루 블라인드"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다

| 인터뷰. 권 형은미변호사 |

**"아버지를 위해 바닷속에 뛰어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뉴욕의 거리에서 던진다면, 사람들의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망설이며 모호한 답을 내놓고, 또 다른 이는 단호하게 가능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이 예견된 이 상황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라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유력 브로드웨이 제작자는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란은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지만, 심청은 몸을 바닷속에 던졌다." 그는 한국적 가치인 '효,' '사랑,' '용기'를 상징하는 심청의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2024년, 한국의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한국 문학과 문화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와 예술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우 박해미는 한국 전통 설화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창작 뮤지컬 "블루 블라인드"로 '브로드웨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에 뛰어드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박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 용기 있는 한국의 딸이자, 여성이며, 인간상입니다. "블루 블라인드" 속에서 심청은 '시아'라는 인물로 재탄생했고, 그 여정은 한국적 서사가 지닌 보편적 감동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관객에게 공감을 줄 것입니다."



*Blue Blind Corp.*

**Park Hae-mi's Courage**  
*Sim Cheong's Sacrifice:*  
*A Step Toward Broadway*